지금
해외에서는
VENTURE

글 노승준 / CJK스트래티지 대표

은퇴한 일본 시니어들의 활약

공자 말씀에 군자는 30에 서고(以立) 40에 불혹(不惑)이며 50에 지천명(知天命)이라 하였다. 그 말씀이 있을 당시 인간의 평균수명이 50이 채 안 되었으니 지금의 수명이라면 50에 세상의 이치를 알고 60에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며 70에 천명을 안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역사적 유추는 논외로 하더라도 IMF 위기가 지난 후 인간으로서 그리고 전문가로서 최성기에 도달한 40대 후반, 50대 초반의 인재들이 산업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고 마는 우리의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라고 한다면 과장일까?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물결은 우리로 하여금 일과 연령의 관계에 대하여 반추하게 한다. 인구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일본에서 시니어세대, 소위 silver force의 활용은 사회적 운동이자 산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일본을 대표하는 미쓰이, 스미토모, 히타치 등에서 평생을 봉직하고 은퇴한 사람들 30명이 만든 '경영지원NPO클럽'이라는 조직이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회사를 위하여 경쟁하였다면 이제부터 사회, 특히 중소기업을 위하여 힘을 모아 봉사하겠다는 것이다.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지식과 경험을 중소기업에게 전수하고, 지금까지 쌓아 온 인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을 돕겠다는 등 결의가 대단하다. 물론 거창한 'Consulting fee'는 없다.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받는 NPO이다. 확산되고 있는 NPO의 기세로 보아 일본 시니어들의 전문적 사회봉사는 빠른 속도로 번창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창창한 나이에 낚시나 철새보기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평생을 연마해 온 능력과 프라이드가 용서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들의 활동이 국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일본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은 일본인 다음에 대만인일 것이다.

그러하니 대만에 일본인들이 팔이 안으로 굽듯이 정겹게 대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일본의 은퇴한 기술자, 전문직들의 대만행렬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며 최근에 더 가세하는 느낌이다. 특히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지리멸렬하며 이 업계의 시니어들이 대만을 '봉사의 터'로 보는 것은 자명하다.

중국과 동남아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기업은 이미 1970년대 중반에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 중국에서의 주도권을 미국에게 빼앗기기는 하였으나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국내 거래관계와 인맥은 가장 광범위하다. 이 거미줄 같은 조직에 일본의 시니어들이 들어가 지도를 하고 있다. GDP의 20% 가까이를 일본기업이 담당하던 동남아의 대부부의 국가들은 아예 일본 시니어들의 은퇴장소가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시니어들은 세상은 넓고 나이는 젊은데 할 일이 없다. 일본 대기업에서 50살이면 아직 부장이 채 안된 중년이지만, 한국 대기업에서는 '노인네'이다. 기업사회가 젊어지는 것은 바람직할 지 모르나 한국의 현실은 기업사회의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기 보다는 구조조정이라는 광풍의 결과일 뿐이다.

이런 쓸쓸한 현실에 반해 격려가 되는 움직임도 없지 않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최고경영자 출신들이 만든 프리씨이오(www.free-ceos.com)가 그 한 예이다. 국내외에서 힘든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벤처기업들에게 은퇴한 시니어들은 귀중한 존재가 아닐까? 청(靑)이 남(藍)보다 푸를 수 있다고 하나 이는 청이 남을 모방하고 따라잡은 결과다.

CJK Strategy

CJK스트래티지는 국내외 정상급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회사로, 국제적 · 전략적 이슈들에 대한 신속한 정보 및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다.